

| 사회적 대화 현장 |

쌍용차 해고자 119명, 다시 일터로

문성현 위원장 적극 중재, 노사정 전격 합의

박종훈 <참여와혁신> 취재팀장



쌍용자동차 남은 해고자 119명이 2019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꾸준한 노력이 뒤늦게나마 결실을 맺었다.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복직 대상자 119명은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내년 상반기 복직 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무급휴직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쌍용자동차지부는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가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상대로 한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익(집회, 시위 등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 합의서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2. 2019년 상반기 대상자중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 사항은 기 시행한 사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추진 한다.
3. 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회사가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익(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해 추가적 정부 지원 방안 마련 및 본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노사정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18년 9월 14일